

사법도 與 뜻대로... 내란 특별재판부 추진

정청래 “반민특위 때와 비슷” 내란특별법 4일 법사위 상정할 듯
 대법원 “사법권 독립 침해, 위헌 소지”... 여당 일각도 역풍 우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개막한 1일, 더불어민주당은 3대(내란·김건희·해병) 특검법 개정안뿐 아니라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 추진을 본격화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사법권 독립 침해, 재판 독립성 저하, 사법의 정치화 등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조계에서도 우려가 확산하고 있지만, 여당 강경파는 이 법을 밀어붙일 태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흡사 해방정국 반민특위(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상황과 비슷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때 친일파 척결이 시대적 과제였다면 지금은 내란 세력 척결”이라며 “다시는 내란의 꿈을 꿀 수 없도록 청산하겠다”고 했다. 정치가 사법 체계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비상계엄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내란특별법은 최근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여권에서 본격 제기됐다. 국회(국민의힘 제외), 판사회의, 대한변협이 각 3명씩 추천해 구성한 위원회가 특별재판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한 이 법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현대업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도 이날 국회에 나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특별영장전담법원과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게 재판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박찬대 의원 등 115명이 발의한 내란특별법을 오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려 소위에 부칠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논의를 거쳐 조만간 당론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위헌 논란 등으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지만,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는다.

한편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위원회 설치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 개혁’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첫 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을 해왔음에도 이례적으로 절차 진행이 계속되는 비상 상황”이라며 조만간 전국 법원장 회의의 소집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노석조·김경필 기자 기사 A3면



한복과 상복... 정기국회 첫날부터 갈라선 與野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한복을 입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에 항의하는 뜻으로 상복(喪服)을 연상시키는 검은 양복과 검은 넥타이 차림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김건희·내란 특검 등의 기간 연장, ‘검찰 개혁’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어서 야당과 충돌할 전망이다. 남경훈 기자

더 선명해진 서체, 독자들 호평

“시원하고 또렷해져
 신문 읽기 편해졌다”

‘아름답게 읽히는 한글의 맛’ ‘독자를 배려한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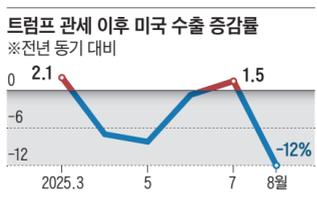


조선일보가 지난달 19일 본지 지면과 전자 문서(PDF)의 본문 서체를 개편한 뒤 독자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글자 크기는 이전과 같은데도, 글꼴의 획·굵기·형태를 수정해 많은 독자가 “이전보다 글씨가 커 보이고 선명하다”고 입을 모았다.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는 “신문 읽기가 훨씬 편해졌다”며 “디자인 면에서 조선일보가 선도하는 것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20대 젊은 층에서 노년층까지 다양한 계층을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포용 디자인)’의 정신을 담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서체 연구자인 유지원 글문화연구소장은 “트렌드를 반영하면서도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포용성이 돋보인다”고 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전통의 깊이와 현대적 세련미를 동시에 갖췄다”고 했다. 베스트셀러 ‘저속 노화’ 저자인 정희원 의사는 “전자 문서를 확대했을 때 부드러우면서 해상도가 높아 읽기 편하다”며 “세련되고 품위 있는 서체”라고 했다. 최보윤 기자 기사 A12면

대미수출 12% 급감, 車·철강 ‘관세 폭탄’ 현실화

코로나 이후 첫 두 자릿수 감소
 8월 전체 수출액은 1.3% 증가



8월 우리나라의 미국 수출이 작년보다 12% 감소했다. 대미 수출 증감률이 두 자릿수 감소세를 기록한 건 코로나 팬데믹 때인 2020년 5월(-29.4%) 이후 5년 3개월 만이다. 다만, 전체 수출은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월간 기준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아세안·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 수출 다변화 노력이 효과를 낸 덕분에 작년보다 소폭 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지난달 대미 수출액이 작년 8월보다 12% 감소한 87억4000만달러(약 12조1800억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철강 부문의 대미 수출이 급감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양국 정부는 지난 7월 30일 상호 관세와 자동차·부품 관세를 각각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지만, 자동차·부품은 여전히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 제품은 50%의 고율 관세가 유지돼 국내 철강 업체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

대미 수출 급감에도, 지난달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우리 수출액은 작년보다 1.3% 증가한 584억달러였다. 우리 핵심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이 작년보다

27.1% 증가한 151억달러로, 지난 6월이 이어 두 달 만에 월간 기준 최대 수출액 기록을 세웠다. 자동차 수출도 작년보다 8.6% 증가한 55억달러로, 역대 8월 중 가장 많았다. 미국으로의 수출은 감소했지만, EU와 CIS(소련 독립국가연합) 등에서 선전한 영향이다. 특히 아세안 지역에 대한 수출이 108억9000만달러로 11.9% 늘어, 미국·중국 등 주요 시장 수출 감소를 상쇄했다.

주요 수출 품목 15개 중 반도체·자동차·선박을 제외한 12개 품목은 모두 작년보다 감소했다. 서가람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15대 품목 중 반도체·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40% 가까이 올랐다”며 “수출 품목 다변화를 위한 R&D 지원 등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최은경 기자 기사 A5면

‘김정은 열차’ 국경 넘어... 오늘 베이징 도착

열병식 참석 위해 6년여 만에 방중
 어제 오후 4시 평양 출발, 단둥 거쳐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3일)에 참석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태운 특별열차가 1일 오후 4시쯤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대북 소식통이 전했다. 김정은을 태운 열차는 이날 늦은 시각 북·중 접경 지역인 랴오닝성(遼寧省) 단둥(丹東)역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의 중국 방문은 6년 8개월 만이다.

열병식이 열리는 베이징은 평양에서 열차로 20시간 이상 걸리기에, 김정은의 베이징 도착 시점은 2일 낮이 될 전망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차 먼저 중국에 온 가운데, 김정은

은까지 합류하면서 북·중·러 정상이 탈(脫)냉전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게 됐다.

김정은은 이번 열병식에서 북·중·러의 공조 관계를 대외적으로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지난달 31일에는 새로 조업한 군수기업소를 방문해 미사일 생산 능력을 점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전했다. 김정은이 이날 찾은 지역은 북한의 군수 공장 및 미사일 발사 기지가 밀집한 자강도일 가능성이 크다. 그가 베이징 방문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북한의 군사력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이별찬 특파원 A2면에 계속

八面鋒

한덕수 영장 기각 후 ‘내란 특별재판부’ 추진, ‘해방 정국 반민특위’ 거론하는 與, 상대 초도화해야 적성 풀린다.

○
 대학들, 잇달아 ‘로스쿨 입학 시험’ 대비용 과목 개설, 대학 교육 정상화 가로소름 도입 취지 아니었나요?

○
 유럽서 환경 살리자며 유적 훼손하는 ‘에코 반달리즘’ 극성, 흑시 반환경론자들의 교묘한 안티 공작?



새 자료로 되짚는 이승만의 생애 @가슴에 묻은 친아들 A18

EWHA THE WORLD
 EWHA THE FUTURE

이화여자대학교
 EWHA WOMANS UNIVERSITY

변화에 당당한 이화로운 미래

어제의 이채린 ————— 오늘의 이채린 (스켄랜대학 국제학부 24학번)

이화여자대학교 2026학년도 수시모집 인터넷 원서접수
 2025. 9. 9.(화) 10:00 ~ 9. 11.(목) 17:00

[문의] 02-3277-7000, <http://admission.ewha.ac.kr>